

한국전통 실내공간의 구성방법과 요소분석을 통한 의미 고찰

- 조선조 상류주택을 중심으로 -

천진희 상명대학교 디자인대학 실내디자인학과

1. 연구 목적

한국전통에 관한 관심과 논의는 80년대 후기 모더니즘이 계기가 되어 포스트 모더니즘의 한 표현수단으로 가시화되면서 활발히 진행되어왔다. 한국성을 표현하는데는 원형을 직설적으로 재현하는 방법과 조형의 동기로서 양식적 근거 위에 디자이너의 재해석이 은유적으로 가해지는 방법이 있다. 어떠한 방법으로 한국성이 현대 건축이나 실내공간에 구사된다 하더라도 한국적 이미지나 요소 인용에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외형 안에 내재되어있는 의미를 충분히 고찰해본 후 작업에 적용시키는 것일 것이다. 현존하는 한국의 전통주택 중 조선조 상류주택은 공간의 구성방법과 요소의 표현 양식에 있어 전통성을 구체적으로 느낄 수 있는 史料로서 연구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 따라서 선정된 연구대상의 분석을 통해 그 속에 내재되어있는 의미와 질서를 발견하고자하며, 국제화 시대에 한국성의 모색과 표현에 근거가 되는 자료를 제공하고자한다.

2. 연구 범위 및 방법

한국전통 실내공간의 분석에 선행되어야하는 것은 연구대상의 시대와 계층의 범주를 결정하는 것이다. 현존하는 전통주택은 주로 조선조 후기의 유구이며, 그 이전의 유구들은 건축적 외형이 잘 보존되어있다 하더라도 실내공간의 보존상태가 그리 양호한 편이 아니며, 특히 민가는 상류주택에 비해 보존상태가 더욱 좋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기초단계로 조선조 후기에 건축된 주택 중 그 구성 방법과 요소들의 보존 상태가 양호한 편인 상류주택을 연구 범위로 국한시키고자하며, 사례분석의 틀로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 43호인 秋史 金正禧 선생의 古宅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예비답사와 본 답사를 통해 계량화가 가능한 부분은 실측하여, 이미 정립되거나 추측되어지는 이론을 확증하여 보았으며, 입면상에 나타나는 특징과 평면상에 나타나는 특징으로 분류하여 분석해보았다. 그리고 그러한 특징을 형성시킨 요인과 함께 그 의미를 고찰해보았다.

3. 연구결과

3-1. 추사고택의 입면적 특징

3-1-1. 체의 배치와 좌향

추사고택에서 체의 배치를 살펴보면 소슬 큰대문을 지나 바로 사랑채가 자리잡고 있으며 그 위로 안채, 안채 위로 사당채가 자리잡고 있어 계단식의 입면을 구성하고있다. 즉 상위 공간은 주출입구로부터 가장 높은 곳에, 그리고 하위 공간은 아랫쪽에 위치하게 되는데, 이것은 엄격한 계층성에 의한 장소성을 의미

한다. 안채의 기단이 사랑채 기단보다 높아 안마당부터 안대청까지는 1090mm, 사랑마당부터 사랑대청까지는 680mm인데, 이는 유교적인 제례와 민속적인 혼례 및 집안의 대소사가 사랑채가 아닌 안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며 공간의 상징성을 우선적으로 보는 기풍에서 비롯된 것이다. 또한 사랑채와 사당채가 남향하고 안채는 동향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유교의 조상숭배, 의식중심적 생활, 가부장적 가족제도, 철저한 계급의 식적 사고방식이 건물의 좌향과 주거생활에 크게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다.

3-1-2. 실의 높낮이

추사고택은 동일한 체 안에서도 대청과 온돌방은 높은 위치에 놓여지며, 부엌은 아주 낮게 설치되어 있어, 안채의 대청바닥은 부엌바닥보다 850mm나 높다. 동일한 높이의 지붕 아래에서 각 실이 높낮이를 달리하여 배치된 것은 각 실이 신분상의 위계질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며, 온돌과 마루라는 이질적 요소가 결합 공존하고 있기 때문이라 설명할 수 있다. 조선시대 상류주택에서 대청은 권위를 상징하는 공간의 의미를 지녀, 사랑채와 안채의 공간 구성에 있어서 하나의 축을 형성하며 가장 높고 향이 좋은 곳으로 배치되었으며, 난방과 취사를 겸한 부엌은 하인의 작업역으로 아주 낮게 바닥을 마감하였으니 이것은 조선시대의 상위 공간과 하위 공간 분화의 한 예가 된다. 또한 내부공간의 성격이 마루와 방으로 나뉘는 것은 음양사상과 한 반도의 지리적 특성으로 설명될 수 있으며, 마루는 양중 음의 공간, 온돌은 음 중 양의 공간이 되는 것이다.

3-1-3. 입면을 구성하는 요소

추사고택 대청의 입면을 구성하는 요소는 목가구식 구조의 건축 체계와 창호이다. 목재의 자연스러운 질감과 색채를 그대로 느낄 수 있는 바닥과 대들보, 처마도리, 중도리, 종도리 구조의 노출 천장, 그리고 기둥만 노출된체 마당이나 온돌방과 경계를 이루는 창호는 전통 한국건축의 미적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한다. 안대청과 사랑대청 전면의 들어열개문을 비롯하여, 대청 후면의 판장문, 안채의 옷방과 대청과의 경계를 이루는 세쌍의 불발기문,안방과 대청 경계의 두쌍 맹장지문, 사랑대청과 사랑방 경계의 분합문 등이 인체치수에 적합한 규격화된 크기로 개폐여부에따라 한옥 특유의 입면을 구성하게 된다. 개구부는 좌식 생활에 기초한 인체치수 이외에도 겨울철의 효율적 에너지 관리와 유교적 사상에 바탕을 둔 것이다. 또한 온돌방의 입면을 구성하는 요소는 창호 및 백색조의 벽면을 배경으로한 가구인데, 긴것과 짧은 것, 높은 것과 낮은 것의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되는 내부 공간의 질서는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長短相較 高下相傾으로 설명될 수 있다.

3-1-4. 입면적 척도

대청은 각 부재에 따라 지붕의 높이와 경사가 결정되는데, 서까래는 지붕의 빔물받이 물매에 따라 30도 정도의 각도로 걸리게 되며, 처마도리부터 중도리까지는 경사가 완만하고 중도리부터 중도리까지는 경사가 급해져 중심부의 가장 높은 자리는 3690mm가 된다. 이 높이는 5척(1913년 자료를 참고할 때 남자 161.1cm, 여자 147.2cm)을 평균 신장으로 설정하였을 때 마루 위에서 서 있는 사람 신장의 2배가 넘는 높이이다. 그리고 주된 활동 영역인 온돌방의 천장고는 안방이 2320mm, 건너방과 사랑방이 2230mm인데, 이는 사용자의 키와 놓여지는 가구의 높이와 상관성이 있다. 특기할 사항은 사랑방에 비해 안방의 천장고가 높다는 사실인데, 이는 추사고택 안방의 경우 상징적 우위의 공간으로 집안의 대소사가 이루어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안방과 사랑방에 설치된 4.5척의 쌍창은 방바닥에서 머름대까지의 높이 1.5척을 합해 6척 정도가 되었는데, 이 높이는 통행에 편리한 개구부의 치수가 된다. 그리고 온돌방을 점유하고 있는 가구치수를 파악해본 결과 부피가 작고 아담하게 제작되었는데, 가구의 입면적 척도는 가부좌의 형태를 기본으로 한 생활습관에 따른 것으로 전체적인 입면 척도가 현대의 입식생활보다 낮았기 때문이다.

3-2. 추사고택의 평면적 특징

3-2-1. 평면의 구성단위

추사고택의 평면을 살펴보면 주간 약 8尺(2490mm)이 건축적 모듈을 형성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이러한 규격화는 칸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칸이란 기둥과 기둥 사이 또는 네 기둥으로 구성되는 하나의 Modular Grid이며 가구식 구조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평면이 1칸을 모듈로 하여 확장될 수 있었던 요인은, 첫째로 좌식 생활의 인체 치수에 합리적인 척도였기 때문이며, 둘째로 재료사용상의 경제성과 건축의 구조 역학적 측면으로, 건축 구조재의 크기가 1칸의 규모를 결정하기에 합리적인 치수였다. 셋째는 신분 계급에 따른 가사 제한과 건축 부재의 제한 등으로 1칸의 구성단위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었음직하다. 넷째는 기후적 요인을 들 수 있는데, 특히 추운 겨울의 경우 1칸 크기를 기본으로 하는 폐쇄적 공간이 난방의 효율성을 높여줄 뿐 아니라 안락감을 줄 수 있었기 때문이다.

3-2-2. 칸의 확장성

상류주택의 평면은 최소의 단위인 1칸을 기본 모듈로 하여 규칙적인 공간 단위를 병렬로 증식시키고 필요에 따라 개방시킬 수 있는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주택의 평면 구성이 합리성보다는 가부장제의 제도하에 그들의 일상생활이 하인들의 도움을 받아 이루어졌으므로 동선의 합리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이다. 대청마루는 칸마다 2-3개의 마루대로 바닥을 나누고 여기에 직각으로 마룻널을 깔게 되어 있는 우물마루 형식이므로 자연스럽게 칸이 강조되고, 천장의 대들보 선과 일치되는 구성형식을 갖고 있다. 칸이 증식되어 대청의 크기가 정해지는데 대청크기의 결정 요인은 그 무엇보다도 지붕 구조 및 건축 부재의 치수, 그리고 생활방식에 기인한 것으로, 추사고택의 안대청이 6칸이나 사랑대청이 1칸으로 매우 좁은 것은 안대청의 기능과 상징성 때문일 것이다. 또

한 온돌방의 크기를 살펴보면 2칸 규모의 안방과 건너방은 대청을 중심으로 거의 대청을 이루고 있는데, 이는 조선조 서부형 가계 계승 방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부모가 돌아가신 후 완전한 가계 계승이 이루어지므로 대체로 방의 크기나 장식에 비숫했던 것이다. 일반 상류주택 사랑채의 경우는 장유유서의 유교 윤리가 그대로 나타나, 가부장을 위한 사랑방과 사랑 아랫방과의 규모 차이가 있는데, 추사고택 사랑 아랫방이 2칸 규모의 마루구조로 되어있는 것은 이곳이 사랑대청의 연장으로 추사 김정희 선생의 작업영역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이며, 방의 규모가 사용자의 사용목적에 따라 임의로 결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단서가 된다.

3-2-3. 평면적 배치의 개방성과 폐쇄성

추사고택 안채는 폐쇄적인 ㅁ자형, 사랑채는 개방적인 ㄱ자형으로 구성되어있는데, 이는 조선조의 남녀 지위차등과 내외 사상이 주거의 평면 구성에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조선시대 남녀의 지위는 유교적 계율 아래 부부유별이라는 상하의 종속 개념으로 바뀌어 여성들은 내외법에 따라 직계 존비속 외의 남성 출입이 금지된 폐쇄적인 공간 안에서 생활하게 되어 주생활 영역이 크게는 안채, 작게는 안방으로 국한되었는데, 어려서는 친정의 안채나 별채에 거거하다 혼인을 하면 ㅁ자형 가옥으로 둘러싸인 네모난 하늘을 바라보며 일생을 지냈다. 이는 가옥의 악천후나 야생동물로부터 방어기능, 길상문자의 입구자 ㅁ에서 근거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남존여비적 부녀유폐를 위한 물리적 기제로 내외지법의 질서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3-2-4. 가구와 기물배치의 특징

추사고택의 안방과 사랑방은 아랫목을 축의 중심으로하여 보료와 서안이 놓여지고 이외의 가구가 벽을 따라 배치됨으로써 좌우 비대칭의 균형을 이루고 있다. 이때 축의 중심점이 상위의 공간이 되며, 중심으로부터 멀어질수록 하위의 공간이 되어 공간의 위계성이 정립된다. 안방가구와 기물은 폐쇄적인 공간에 사용된 탓인지 크게 형태의 변화가 없게 간결하게 제작되었으며 넓은 생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수량도 제한된 듯하다. 사랑방 가구와 기물은 단순하고 소박한 소품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사대부들의 장식과 색채를 절제하고자 했던 면을 느낄 수 있는데, 유교의 금욕적인 윤리관과 선비의 생활 철학을 반영하는 것이다.

4. 결론

조선조 상류주택의 연구사례로 추사고택을 분석해 본 결과, 실내공간의 평면적, 입면적 특징은 한반도의 기후적 요인과 지리적 특성에 기초한 자연환경적 배경과 유교와 음양 사상을 근본으로 한 인문환경적 배경의 직접적 영향이나 상관성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형성되었고, 조선인의 인체공학적 치수와 주택에 대한 의식 등의 제반 요인들이 결합되어 융통성을 가진 정형화된 공간의 특성을 지니게 되었다고 요약할 수 있다. 본 연구가 기초가 되어 다양한 사례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미비점이 보완된다면 더욱 체계적인 연구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